

코로나 악재 극복한 K리그 하나금융과 동행 유지 전망

올해 연말 타이틀스폰서 4년 계약 만료
재계약 협상 순항…후원 규모 비슷할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협을 뚫고 성공리에 2020시즌을 마무리하고 있는 K리그와 하나금융그룹의 동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복수의 축구 관계자들은 24일 “내년 이후에도 하나금융이 K리그의 타이틀스폰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오래 전부터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귀띔했다. 연맹도 “계약이 끝날 하나금융과 스폰서 관련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며 긍정적 분위기를 전했다.

전북 현대의 사상 첫 4연패로 귀결된 K리그1(1부)은 큰 사건사고 없이 종료됐고, K리그2(2부)는 1장의 승격 티켓을 놓고 치러질 준플레이오프(준PO·25일 창원)와 PO(29일 수원)만 남겨놓은 상태다.

하나금융은 2017년부터 K리그의 타이틀스폰서를 맡아왔다. 4년 계약으로 연간 35억 원씩 프로축구를 후원했다. 특히 하나금융은 축구국가대표팀도 1998년부터 후원했고, 프로·아마추어 클럽이 총출동하는 FA컵과도 꾸준히 함께했다. 코로나19가 강타해 명맥이 끊겼지만, K리그 올스타전도 2012년부터 후원한 바 있다.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둔 가운데 K리그와 하나금융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코로나19 시국에서 마땅한 플랜B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류는 나쁘지 않다. 후원규모 감축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한 축구인은 “큰 변수가 없다면 기존 규모 선에서 K리그와 하나금융의 후원 재계약이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역시 연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권오갑 프로축구연맹 총재(현대중공업지주 회장)의 후임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남정현 기자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오늘 경남 vs 대전하나 K리그2 준PO 단판승부…승자의 1부 승격 가능성은?

승강 PO 없는 올시즌…2경기만 이기면 돼!

처음으로 준PO가 도입된 2014시즌
4위 턱걸이한 광주FC 1부 승격 성공
2015년 수원FC·2016년 강원 파란

K리그에 준플레이오프(준PO)가 도입된 때는 2014시즌이다. 처음으로 승격과 강등이 동시에 시행된 2013시즌에는 자동 강등(1부 13위·14위)과 승강 PO(1부 12위 vs 2부 1위)만 있었다. 2부 3위와 4위가 격돌하는 준PO는 승격을 위한 판문을 하나 더 둔 셈이다. 처음 3년간은 준PO 승자의 파란이 주목을 받았다. PO~승강 PO까지 가뿐하게 통과하며 지상과제인 승격에 성공했다.

2014시즌에는 광주FC가 이슈의 중심에 섰다. 4위로 준PO에 턱걸이한 광주는 3위 강원FC를 1-0으로 눌렀다. 이후 파죽지세였다. PO에서 안산을 3-0으로 돌려세운 뒤 1부 11위 경남FC와 승강 PO에서도 1승1무를 거두며 꿈을 이뤘다. 광주는 아래 순위(4위 또는 5위)로 승격을 이룬 유일한 팀인데, 남기일 감독대행



경남 설기현 감독

대전하나 조민국 대행

역대 K리그2 준플레이오프(준PO) 승리팀 최종 성적		
시즌	준PO 승리팀(상대)	최종 성적
2014	광주FC(강원FC)	1부 승격
2015	수원FC(서울이랜드FC)	1부 승격
2016	강원FC(부산 아이파크)	1부 승격
2017	아산 무궁화(성남FC)	PO 패
2018	대전 시티즌(광주FC)	PO 패
2019	FC안양(부천FC)	PO 패

(현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의 주가가 높았던 시즌이었다.

2015시즌은 ‘공격축구’를 앞세운 조석제 감독의 수원FC의 해였다. 3위 수원FC는 준PO에서 4위 서울이랜드FC와 난타전 끝에 3-3으로 비겼는데, 리그 순위에 어드밴티지를 주는 규정 덕분에 PO에 올랐다. PO에서 대구FC를 2-1로 꺾었고, 1부 11위 부산 아이파크와 승강 PO에서도 2승으로 1부 무대에 올랐다.

2016시즌에는 강원이 히트를 쳤다. 당시 2부 1위 안산무궁화의 신생팀 창단으로 승격 자격이 박탈되면서 준PO는 4위(강원)와 5위(부산)간 대결로 벌어졌다. 결과는 최윤겸 감독의 강원의 1-0 승. 이후 부천FC와 PO에서 승리(2-1)한 데 이어 성남FC와 승강 PO에서도 홈 1차전 0-0, 원정 2차전 1-1 무승부로 ‘원정 다득점 우선 원칙’에 따라 승격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17시즌부터다. 준PO에서 성남을 누른 아산 무궁화는 PO에서 부산에 0-3으로 완패했다. 2018시즌 준PO 승자인 대전 시티즌은 PO에서 부산에 무릎을 꿇었다. 2019시즌 역시

부천을 따돌리고 PO에 진출한 FC안양이 부산에 0-1로 패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3시즌 연속 부산의 PO 아성에 무너졌다. 지난해까지 6번의 준PO 승자 중 1부까지 오른 경우가 3번이고, PO에서 진 경우도 3번이다.

이제 관심은 2020시즌이다. 설기현 감독의 경남과 조민국 감독대행의 대전하나 시티즌이 25일 오후 7시 창원축구센터에서 준PO를 치른다. 이번 시즌에는 승강 PO가 없다. 따라서 준PO와 PO, 딱 2경기만 이기면 곧바로 승격이다.

기록상 경남이 유리하다. 올 시즌 2승 1무로 앞섰고, 홈에선 2승이다. 역대전 적에서도 2008년 이후 홈에서 14경기 연속 무패(9승5무)다. 또 대전은 외인 공격수 안드레(13골)가 경고누적으로 결장한다.

하지만 단판승부는 예측불허다. 당일 선수들의 컨디션이 승부를 크게 좌우한다. 과연 준PO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이 팀이 2016시즌 이후 4년 만에 승격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삼엄한 경비…훈련장만 허락된 ACL 전사들

카타르 정부, 안팎 접촉 완벽 차단
선수들 TV 시청·호텔 등 방콕 생활

K리그1(1부)과 FA컵, 국내무대는 막을 내렸지만 2020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동아시아권역대회가 카타르 도하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K리그1 4연패에 성공한 전북 현대, 2년 연속 준우승한 울산 현대, FC서울과 수원 삼성이 출전했다.

도하의 일상은 상당히 뻘뻘하다. 조금도 여유를 느낄 수 없다. 카타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출전팀들을 ‘버블(bubble·방울)’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서다. ‘버블’은 마치 물방울처럼 안팎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한다는 의미다.

수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전북과 서울, 울산과 수원이 대회 기간 같은 속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수단의 삶은 지극히

히 단조롭다. 리조트와 훈련장, 경기장만 왕복할 뿐 일체의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숙소 주변 산책도 불가능하다.

또 ‘버블’로 묶인 지역 곳곳에 배치된 경찰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 이치훈 운영홍보팀 과장은 “경비인력이 엄청나다. 에스코트 없이, 공식허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하다. 감염 예방을 위해 다른 방 출입도 제한하고 있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심지어 숙소 안에서도 같은 팀 선수들은 팀 미팅과 웨이트트레이닝만 아니면 마주할 일이 거의 없다. 전북의 경우 식사와 간식도 방에서 한다. 카페, 레스토랑 등 호텔 내 상업시설도 전혀 운영되지 않는다. “아 외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가 유일하게 오픈된 공간인데, 시간 단위로 같은 숙소에 머무는 팀들이 나눠 쓴다”는 것이 전북 김상수 홍보팀장의 전언이다.

그래도 체류기간이 일주일만 넘어가자 선수들은 ‘방콕’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 T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카타르 정부는 특정 지역에 모든 팀을 몰아넣고 관리하는 ‘버블’을 운영하고 있다. 외출은커녕 가벼운 산책조차 불가능한 환경이지만, 각 선수단은 시간을 잘 보내는 나름의 노력을 찾아내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 카타르에 머물고 있는 울산 선수단의 훈련 모습.

사진 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V로 ACL 경기를 시청하고 독서 외에 태블릿PC와 노트북, 휴대폰으로 게임과 소셜 미디어(SNS)를 즐긴다. 밀린 드라마와 영화, 외화를 아껴보기도 한다. 동영상으로 홈트레이닝을 배우는 경우도 있다. 울산이

경민 홍보담당관은 “대표팀 선수들이 많아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더라. 각자 루틴을 지키며 대회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10년 연속 판매 1위

No. 1

※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기준

Returnup 리턴업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소팔메토 열매추출물, 비타민 B군 4종,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30g(500mg X 60캡슐)

리턴업

나의 건강 리턴포인트

Returnup

영양성분

1회 분량 당 함량: 열량 0kcal, 탄수화물 0g(0%), 단백질 0g(0%), 지방 0g(0%), 나트륨 0mg(0%), 포도당 0g(0%), 총 지방산 89.6mg, 비타민B12 12mg(100%), 비타민B6 1.4mg(100%), 비타민B15 15mg(100%), 비타민B2 2.4mg(100%), 아연 4.95mg(58%), 셀레늄 30μg(55%)

※ () 안의 수치는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 1X(1회) X(1회)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특별 이벤트

CJ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맨케어파워 옥타코사놀

3개월분 증정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22-9988